

조선시대 이전 耽羅國 중심 마을의 형성과 변천

-濟州牧官衙址 일대를 중심으로-

김 일 우¹⁾

The Formation and Changes of the Main Villages of Tamna until the Chosun Period

Kim, Il-Woo¹⁾

요 약 : 오늘날 濟州牧官衙址는 제주시 소속 19개 행정동 가운데 하나 三徒2洞의 관내로서 조선시대 濟州牧의 東軒을 비롯해 여러 관아 시설이 들어섰던 곳을 일컫는다. 한편, 제주 지역의 耽羅國은 5세기 이전부터 출현하였거니와, 그 정치·사회발전단계가 1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정치조직체의 위상을 지녔다고 하겠다. 이로부터 제주목관아지 일대는 제주사회의 중심 마을이 들어섰던 곳이다. 그리고 제주목관아지 일대를 일컫는 ‘삼도2동’이라는 이름은 삼도1동과 함께 조선시대의 ‘三徒里’로부터 유래했다. 삼도리 지역의 경우, 첫 마을 형성에 관한 기원은 ‘三姓神話’를 통해 엿볼 수 있고, 그 연혁은 고고학적 자료와 사서 등을 통해 추적해 볼 수 있다. 이로써 제주목관아지 일대는 5세기 이전 탐라국의 중심 마을이 들어선 뒤, 고려·조선시대를 거쳐 1950년대 이전에 이르기까지 제주사회 최대 규모의 중심 마을이 유지되어 왔었음이 드러난다. 게다가 선사시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제주사회의 형성과 변천을 엿볼 수 있는 역사유적도 도처에 산재해 있다. 이 가운데 탐라국의 개막 및 전개와 관련된 마을 유적도 상당수 찾아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때문에 제주목관아지 일대는 제주사회 형성사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안목의 정비와 보존이 기대되는 곳이라 하겠다.

주요어 : 제주목관아지, 삼도리, 삼성신화, 탐라국, 마을 형성, 제주성

Abstract : Jeju Mokkawanaji is referred to as the site where the government complex used to stand, including “Dongcheon”(main building of provincial office) of Jeju-mok in the Chosun Period. Nowadays it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Samdo-2-dong, one of Jeju city’s 19 administrative dong. Tamna, which already came into being in this area during the fifth century, is said to have had the status of autonomously operated political system until the early tenth century. Thereinafter, main villages of Jeju community had come up in the area revolving around Jeju Mokkawanaji. The names of ‘Samdo-2-dong’ for the Jeju Mokkawanaji area and ‘Samdo-1-dong’ are originated from the place name of ‘Samdo-ri’ of the Chosun Period. In the case of the ‘Samdori’ region, the origin about its firstly-formed village was suggested in ‘Samsungshinhwa’ and its history and development can be traced back through archaeological materials and historical documents. As such,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area included the main villages in the biggest scale since those of Tamna’s were built during the Koryo and Chosun Periods until 1950s. Furthermore, scattered around this area are historical remains that help get a sense of the formation and changes of the Jeju society. Also, a number of village remains can be found, relative to the starting and development of Tamna. Accordingly, the area of Jeju Mokkawanaji is thought to be entitled for maintenance, repairs and overhaul as well as preservation with a discerning eye, showcasing the formative history of Jeju.

Key words: Jeju Mokkawanaji, Samdo-ri, Samsungshinhwa, Tamna, the Formation of Villages, Jeju Fortress

¹⁾ 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재연구소(JEJU CULTURE & ART FOUNDATION), ilwoo60@nate.com

1. 머리말

제주목관아지는 조선시대 제주 지역을 총괄하는 제주목의 목사(牧使)가 집무하던 동헌을 비롯하여 여러 관아 시설이 들어섰던 곳을 일컫는다. 현재 제주목관아지 일대는 제주시 소속 19개 행정동 가운데 하나 삼도2동의 관내, 그것도 중심부 지역에 해당한다. 삼도2동은 중심부에 제주목관아지를 두고서, 경계가 서쪽으로는 서사로와 탐동로를 사이에 두고 삼도1동과 용담1동, 동쪽은 중앙로를 경계로 삼아 이도1동과 일도1동 및 건입동, 남쪽은 전농로를 사이에 두고 삼도1동 등과 접하는 한편, 북쪽은 현재 매립되어 있는 탐동 일대의 서부 해안지대와 잇닿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주도 사회는 탐라國(檀羅國)와 島夷·東瀛州·州胡國·涉羅 등으로 일컬어졌음이 각종 사서에 나오고 있거니와, ‘탐라’라는 명칭이 기록으로 확인되는 시기는 476년이 가장 이르다.¹⁾ 종전 탐라국과 관련해서는 여러 논자가 정치·사회 발전단계에 대해서도 다루었다.²⁾ 이들 연구는 탐라국의 정치·사회 발전단계와 이를 규정하는 용어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탐라국이 백제·고구려·신라 등과 조공관계를 맺었고, 발전단계가 이들 삼국과 같은 형태에 이르지 않았더라손 치더라도,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정치체였다는 점은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여하튼, 제주목관아지 일대는 탐라국 시기 전후 무



<사진 1> 제주목관아(복원)와 경관

렵부터 조선시대 제주 지역이 제주목·대정현·정의현 등의 三邑으로 분화되기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제주사회의 중심 마을이 들어섰음과 아울러, 이와 관련한 역사유적도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다. 이에 조선시대 이전 탐라국 중심 마을의 형성과 변천은 제주목관아지 일대의 마을 형성사를 통해 엿볼 수 있고, 그 흔적은 현재도 남아 있는 제주목관아지 일대의 역사유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제주목관아지 일대, 즉 삼도2동은 삼도1동과 함께 조선시대의 ‘三徒里’로부터 유래했다. 때문에 제주목관아지 일대의 마을 형성과 그 연혁에 관해서는 삼도리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삼도리 지역의 마을 형성에 관한 기원은 ‘삼성신화(三姓神話)’를 통해 엿볼 수 있고, 그 이후 변화는 고고학적 자료와 사서 등을 통해 추적해 볼 수 있는 편이다.

2. 고려시대 이전

1) 삼성신화와 제주목관아지 일대 첫마을 형성

(1) 삼성신화의 문헌정착 시기와 그 주제

삼성신화는 많은 문헌에 기록되어 전하고 있다. 이들 내용은 서로 대동소이하나, 크게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와 『영주지(瀛洲誌)』 계통의 기사로 각각 분류할 수 있는 편이다.³⁾ 이들 기록은 「성주 고씨가전(星主高氏家傳)」의 그것과 아울러, 삼성신화의 문헌정착 시기와 그 주제를 살피는데도 주요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다.

삼성신화의 내용이 실린 문헌 중 편찬 시기가 가장 이른 것은 정이오(鄭以吾)가 조선 태종 18년(1418)에서 세종 6년(1424) 사이에 지었을 「성주 고씨가전」이다. 두 번째는 세종 14년(1432)에 만들어졌을 『세종실록지리지』이다. 단종 2년(1454) 편찬의 『고려사(高麗史)』에도 『세종실록지리지』에 실린 삼성신화의 내용

<표 1> 삼성신화 수록 각 문헌 내용의 차이점

차이점 항목	문헌	『성주고씨가전』	『세종실록지리지』	『영주지』
전 거		族譜	州古記	없음
삼신인 서열		三者同時湧出, 曰高乙那良乙那夫乙那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세 왕녀 도착지		耽羅東海之濱	東海濱	金塘之岸
세 왕녀 출신지		日本國	日本國	東海上碧浪國
삼신인 차지영역		毛興窟 주변 거주	良乙那→第一都 高乙那→第二都 夫乙那→第三都	高乙那→第二都 良乙那→第一都 夫乙那→第三都

이 거의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다음은 세종 32년(1450) 고득중(高得宗)이 정리했을 『영주지』일 것이다. 이후에도 삼성신화가 실린 문헌이 다수 편찬되었으나, 이들 내용은 『세종실록지리지』, 혹은 『영주지』에 기록된 것을 취했다. 또는 이들 두 사서의 내용을 절충해 실린 문헌도 있다.

『성주고씨가전』·『세종실록지리지』·『영주지』 수록의 삼성신화는 그 내용의 전개가 대체적으로 흡사한 편이나, 내용 전개의 화소를 구성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점도 있다. 특히, 『영주지』의 내용은 후대의 사실을 소급하여 윤색하였다고 여길 만큼, 다른 문헌에 비해 보다 더 풍부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이들 세 문헌의 삼성신화가 보여주는 내용의 차이점을 간추리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삼성신화의 내용이 문헌에 정착되고, 이를 통해 오늘날까지 알려지게 된 것은 15세기 초반 무렵부터였다고 확인된다. 그럼에도, 삼성신화가 처음 문헌에 실린 것은 15세기 초반보다 훨씬 이른 시기였을 것이다.

『성주고씨가전』에는 정이오가 삼성신화를 적을 때 족보에 근거하였음과 고씨선세(高氏先世)에 관한 개략적 자료를 고득중으로부터 건네받았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 자료의 형태는 고씨 가문에 전승되어 왔었던 선대의 이야기를 적은 필사본이었을 것이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의 경우에는 삼성신화의 내용이 제주 ‘고기’(古記)에 전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 ‘고기’의 경우도 제주 관아에 전해져 내려왔었

던 기록일지라도, 그 기록의 원초적 근거가 되었던 것은 양씨(良氏) 가문에 전승되어 왔었던 선대의 이야기, 혹은 그 필사본이었을 것이다.⁴⁾

애초 삼성신화의 문헌 정착화는 15세기 초반보다 훨씬 그 이전부터 고씨와 양씨 가문에 전승·이야기됨과 아울러, 이를 근거로 삼아 고려시대에서 조선초기 사이에 만들었을 족보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그 내용은 고·양·부씨로 일컬어지는 삼성의 시조가 제주사회의 정치적 지배자로 출현하고, 그 지위를 삼성의 후손이 대대로 이어 나아갔다는 사실을 주요 줄거리로 삼고 있다. 실제로, 삼성은 고려시대부터 제주의 토착세력으로 뿌리를 내렸고, 조선초기까지도 우월한 정치·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던 혈연집단이였다. 이로 볼 때, 삼성신화는 고구려의 주몽신화·신라의 박혁거세와 김알지 및 석탈해신화 등과 같이, 혈연적 계보를 내세우는 삼성의 시조신화이자, 정치체와 그 지배자의 등장도 주요 화소로 삼는 건국신화의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2) 삼성신화의 내용구성과 그 연원

삼성신화는 오늘날에 와서도 전해지고 있는 제주의 신화와 설화 중 가장 먼저 문헌에 정착하였다. 삼성신화의 문헌 기재는 삼성신화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내용은 제주와 그 밖 지역의 여느 신화와 설화와도 상통하는 유형의 삽화와 화소로 이루어졌다.⁵⁾



<사진 2> 삼성혈과 전경

우선 삼성신화는 태초에 삼신인(三神人)이 땅속, 즉 모흥혈(毛興穴; 지금의 삼성혈)에서 솟아나 수렵생활을 했다는 내용이 첫 단락을 이루고 있다. 이때의 삼신인은 제주에 출현한 최초의 인간임과 아울러, 제주의 전통적 토착성씨에 해당하는 고·양·부 등의 삼성이 각각 받들어 모시는 시조이기도 하다. 삼성신화 첫 단락에서는 삼성신화가 제주의 개조신화(開祖神話)이자, 삼성시조신화(三姓始祖神話)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남신(男神)의 지중용출(地中湧出)이 주요한 화소를 이루고 있다.

남신이 땅속에서 솟아 나왔다는 화소는 삼성신화 뿐만 아니고, 송당본풀이와 호근리본향당본풀이 등과 같은 제주의 무속신화인 당신(堂神)본풀이에서도 보인다. 즉, 삼신인이 땅속에서 용출했다는 삼성신화의 화소는 수많은 당신본풀이에서도 같은 유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시조가 지중용출했다는 삼성신화의 화소는 우리나라 다른 지역의 신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특이하나, 동남아·타이완·오기나와 등과 같은 지역의 신조신화에서는 시조가 땅속에서 나왔다는 유형의 형태로 상당수 찾아진다.

삼성신화의 내용은 일본국(日本國), 혹은 벽랑국(碧浪國)으로 표현되는 동해 상상국의 세 왕녀가 석함(石函)에 담겨 떠오니, 삼신인이 나이 차례에 따라 나눠 장가들었다는 삽화가 둘째 단락을 이루고 있다. 둘째 단락은 석함표착(石函漂着)의 세 왕녀와 삼신인과



<사진 3> 혼인지



<사진 4> 혼인지내 신방굴



<사진 5> 삼사석과 삼사석비(화북동)

의 혼인이 주요한 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석함표착은 칠성본풀이·월정본향당본풀이·김령계내깃당본풀이·신평과 하천본향당본풀이·중문

본향당본풀이 등과 같은 제주의 무속신화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발견된다. 즉, 여인이 뱀의 몸으로 변신하여 석함에 담겨 표착하였거나, 혹은 제주의 남신이 석함에 담겨 동해 용왕국에 떠나 용왕의 딸과 혼인하고, 함께 다시 석함에 담겨 제주에 표착한다는 이야기가 무속의 당신화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세왕녀의 표착지가 열운리(閱雲里; 성산을 온평리), 혹은 금당(金塘; 조천을 조천리)이라 되어 있는 삼성신화의 내용은 해외의 나라에서 삼신녀(三神女)가 표착해 와서 조천리와 김녕리 및 온평리의 당신이 되었다는 전승과도 일치한다. 특히, 온평리에는 ‘괘성개’ · ‘오통’ · ‘물성개’ · ‘혼인지’ 등과 같은 지명이 현재도 쓰이고 있다. 이들 지명은 삼신인이 바다에 떠오른 석함을 발견한 뒤, 그곳에 들어있는 세 처녀를 만나 혼인하고, 신방(新房)을 마련하였다는 등의 전설에 유래하여 이름이 붙여졌다. 즉, 세 왕녀의 온평리 표착은 옛날로부터 전해져 내려왔었던 것이다.

이로 볼 때, 삼신녀의 석함표착은 성산을 온평리와 조천을 조천리에 전승되어 오다가, 한편으로는 당신화로 정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삼신인과의 혼인이라는 화소와 결합하여 삼성신화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세 왕녀가 석함에 담겨 표착했다는 삼성신화의 화소는 가락국(駕洛國) 수로왕비(首露王妃) 허황옥(許黃玉)의 표착과 신라 탈해왕(脫解王)의 표착신화 등과 같이,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의 전승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발해 연안 · 쓰시마 · 오키나와 · 타이완 · 필리핀 · 인도차이나반도 동부 등의 지역에서도 시조가 상자 모양의 배를 타고 표착했다는 상주표착(箱舟漂着) 시조신화가 확인된다. 즉, 삼성신화의 세왕녀 석함표착은 동남아 일대에 분포된 상주표착 시조신화의 화소와 유사한 형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삼성신화의 셋째 단락은 삼신인이 활을 쏘아 거주할 땅을 정하여 농업과 목축을 시작한 뒤 날로 번성하고, ‘君’ · ‘臣’ · ‘民’의 서열을 정하여 건국했다는 삽화로 이루어졌다. 삼성신화의 셋째 단락에서는 삼신

인이 거주할 영역을 활쏘기로 정했다는 사실이 주요한 화소가 되고 있다.

거주 영역의 선정, 혹은 서열의 구분이 활을 쏘아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제주의 당신화에서도 유사하게 찾아볼 수 있다. 즉, 서귀본향당본풀이 · 동홍본향당본풀이 · 상귀본향당본풀이 · 덕수광정당본풀이 · 상창하르방당본풀이 등에서는 신들이 뽕개질, 혹은 활쏘기로 차지할 마을과 좌정할 곳을 정하거나, 상하 서열을 가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신분의 서열화가 이루어졌다는 삼성신화의 화소는 두 가지의 경우가 드러난다. 하나는 삼신인이 땅에서 솟아날 때 장(長) · 차(次) · 삼(三)의 서열을 양(良) · 고(高) · 부(夫), 혹은 고(高) · 양(良) · 부(夫)로 매겼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삼신인이 세 왕녀와 혼인 · 정착하고 나라를 세울 때 돌을 쏘아 용력(勇力)을 시험하여 상 · 중 · 하를 정했다고 『영주지』에 기록된 사실이다.

신분서열화의 화소는 제주의 당신화뿐만 아니고, 국내외 지역의 신화 · 설화에서도 확인된다. 국내 예는 제주의 당신과 같은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대포리 골매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포리에서는 골매기 하씨(河氏)할배 · 최씨(崔氏)할배 · 양씨(梁氏)할배 등의 삼신위를 받드는 제사가 거행된다. 이들 할배신은 각각 하씨 · 최씨 · 양씨가 시조로 모시고 있다. 그런데 하씨와 최씨가 대포리 지역에 최초로 마을을 이룬 자가 누구였는가를 두고 각각 하씨할배 · 최씨할배 · 양씨할배와 최씨할배 · 하씨할배 · 양씨할배의 순위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삼신 서열의 화소는 신라의 박(朴) · 석(昔) · 김(金)씨가 서로 왕위를 이어갔다는 삼성교립(三姓交立)의 사실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국외의 예로서는 『후한서(後漢書)』 남蠻전(南蠻傳)에 실려있는 묘족(苗族)의 시조신화와 오키나와 유구왕조(琉球王朝)의 창세신화(創世神話)를 들 수 있다. 즉, 묘족의 시조신화에서는 다섯 성씨의 시조가 칼로 돌 쪼기와 흙으로 만든 배를 타서 띄우기 등의 경쟁을

벌여 왕을 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오끼나와 유구왕조의 창세신화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남녀 두 사람이 낳은 삼남 중 첫째는 군주(君主), 둘째는 사제자(司祭者), 셋째는 토민(土民)의 시초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결국, 삼성신화의 삽화와 그 화소가 제주의 무속신화인 당신본풀이에서도 상당수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이라는 점은 삼성신화가 원래 당신삽화와 같은 부류로서 고·양·부 삼성씨족의 조상신본풀이자, 이들 시조신을 모셨던 당의 본풀이적 성격의 신화라 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는 1526년 무렵만 하더라도, 삼성신화에 등장하는 삼성시조가 광양당(廣壤堂)에서 무속제의로 받들어졌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또한 삼성신화의 주요 화소 가운데 남신의 지중용출을 제외한 나머지, 세 왕녀의 석함표착 및 신분서열화 등과 같은 유형의 경우는 우리나라 다른 지역의 신화와 설화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이들 화소의 유형이 동남아·타이완·오끼나와 등의 지역에 걸쳐 분포한 시조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때문에 삼성신화는 한반도와 아울러, 남방계통의 신화를 구성하였던 각각의 요소가 제주에 전파된 뒤, 결합과 토착화의 과정을 거쳐 제주신화로 창출되었다고 봄이 좋겠다. 이에 삼성신화의 연원은 제주도에 사람들이 살 때부터 생겨났을 무속적 문화배경에서 비롯되었고, 그 구성은 한반도와 남방 지역에 걸친 각각의 문화적 요소가 제주로 유입된 다음, 결합과 토착화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3) 삼성신화 내용의 역사적 추이와 마을 형성

삼성신화는 제주사회의 형성과 변천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나아가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삼신인이 땅속에서 솟아나 출현한 뒤, 수렵생활을 영위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⁶⁾ 삼신인은 제주의 첫 토착주민을 상징했다고 보인다. 이들은 농경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자연으로부터 식량을 취득하는 수준의 생활을 영위했던 것이다. 이는 제주에 주민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시대부터이며, 이 시기 주민들은 어로와 수렵 및 열매따기 등을 통해 먹거리를 마련했음도 보여주는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제주의 첫 주민이 땅속에서 솟아나 출현했다 함은 제주가 화산활동을 통해 생성된 섬이라는 점과 아울러, 제주 주민들이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는 기원전 10세기부터 시작했고, 기원후 5세기 이후에도 지속된 혈거생활(穴居生活)을 상징적으로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삼신인이 오곡(五穀)의 종자 및 송아지와 망아지를 갖고 제주에 들어온 세 왕녀와 각각 혼인함과 아울러, ‘第一都’와 ‘第二都’ 및 ‘第三都’ 등으로 구분·구획되는 생활영역이 활을 쏘아 정해졌다는 사실이다.

세 왕녀가 제주에 들어옴은 농경문화의 유입이라 할 수 있다. 이어 삼신인과 세 왕녀의 혼인은 자연으로부터 식량채집 단계의 제주 토착집단이 농경문화를 수용하는 단계를 상징한다고 하겠다. 그 시기는 농경이 제주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무문토기시대 이후인 지라, 연대는 B.C. 500~100년 무렵 이후에 해당할 것이다. 한데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제주 주민들은 농업생산력이 너무 낮아 농경만을 통해서서는 생계를 이어 나아갈 수 없었던 탓에 반농반어(半農半漁), 혹은 반농반목(半農半牧) 형태 등의 생활을 영위했다. 이에 삼신인이 농경을 시작한 뒤 낱알이 부유해져 나아갔다는 삼성신화의 내용은 제주 주민이 종전부터 행해왔던 수렵 등의 생업활동을 그만둔 것이 아니고, 농경이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나아갔던 사정의 반영으로 봄이 좋겠다.

제1도·2도·3도의 설정은 제주도내의 마을 규모가 확대되는 한편, 영역의 확대를 둘러싼 마을 간 경쟁적 관계도 생겨나는 시기의 일처럼 보인다. 그 시기는 제주에 고인들이 축조되며, 군장(君長)과 같은 정치적 지배자가 출현한 A.D. 1세기~5세기 경이었을 것이다.

한편, 제1도는 현재의 제주시 일도동, 제2도는 서귀



<사진 6> 한천 일대 지석묘(웅담동지석묘 제6호)

포시 안덕면 화순리, 제3도는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등의 일대로 각각 보는 문헌의 기록과 함께, 연구자의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고인돌과 고급유물의 출토 등과 같은 고고학적 유물분포와 아울러, 물을 얻기 용이한 하천의 존재와 비옥한 토지 등을 감안해 볼 때, 제1도·제2도·제3도는 제주 역사의 중심지가 되는 제주시·洞 지역 일대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구체적으로는 가장 부피가 크고, 발전된 기술과 노력을 요하는 고인돌의 존재가 확인·추정되는 한편, 현 지명도 일도동·이도동·삼도동 등으로 구분·호칭되는 제주시 지역의 병문천·한천·산지천 주변 일대를 들 수 있다.⁷⁾ 이로써 현 제주시·洞 지역내 일대에는 1세기~5세기 무렵 3개 단위의 군장사회(君長社會)가 들어섰었다고 하겠다.

특히, 『영주지』 계통의 삼성신화에는 제주사회가 보다 더 계층분화가 이루어지는 한편, 각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제주도내 정치·사회조직체가 하나로 통합되고, 이를 일원적으로 지배하는 정치적 지배자가 출현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듯싶은 내용도 나오고 있다. 이들 내용은 고대적 관념보다는, 유교적 관점이 농후하다고 보인다. 설사 그러하더라도, 그 시기는 제주 지역이 탐라 등으로 불리고, 그 정치적 지배자가 한반도 육지부의 삼국과 교역을 행하는 한편, 국주(國主)라는 호칭으로도 일컬어졌던

사실이 확인되는 5세기 무렵 이후부터일 것이다.

통상 신화는 논리적,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화학적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내용에는 신화가 형성될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함께, 생활상이 반영되어 있기 마련이다. 삼성신화도 제주 주민의 출현, 문화의 유입과 수용, 생활활동의 변천, 정치적 지배자의 출현과 정치조직체의 수준 및 그 영역의 분할과 통합 등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는 문화의 유입과 수용에 따라 제주사회가 형성·변천되어 나아갔고, 그에 따른 정치체의 등장과 그 수준을 가늠하는데 하나의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사실이다. 이에 상고시대 제주사회의 형성과 변천에 관해서는 삼성신화의 내용에 대한 분석적 이해와 아울러, 역사 고고학적 자료의 규명이 결합되었을 때, 보다 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삼성신화가 원초적인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음을 의미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특히, 제주목관아지가 자리잡은 현재의 삼도2동 일대는 삼도리(三徒里)부터 유래했고, 삼도리는 삼성신화에 나오는 삼신인 형제 가운데 셋째가 차지한 영역인 삼도(三徒)에 기원을 두고 있다. 즉, 삼신인 형제가 활을 쏘아 자신의 거주지를 정했는데, 그 거주지가 만이는 ‘一徒’, 둘째는 ‘二徒’, 셋째는 ‘三徒’였다는 것이다. 이때의 ‘徒’는 ‘都’나 ‘내’로 표기되기도 하거나, 그 의미가 일차적으로는 ‘무리’, 이차적으로는 ‘무리지어 사는 사람’이나 ‘집단’이었던 만큼,⁸⁾ 마을의 뜻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도·이도·삼도는 3개 마을의 구분이고, 그 호칭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이로써 오늘날 제주목관아지 일대의 기원이 되는 삼도리 지역은 탐라국이 출현하던 1세기~5세기 무렵에 이르러서 상당한 규모의 마을이 들어서었다고 하겠다.

2) 첫 마을 형성 이후 제주목관아지 일대의 변화

삼도리 지역, 곧 제주목관아지 일대는 5세기 이전



<사진 7> 무근성 표지석과 전경



<사진 8> 탐라시대 고성터 표지석

첫 마을이 들어선 이래 계속적으로 제주사회의 중심지로 부상함과 아울러, 마을 규모도 확대되어 나아갔다.

첫 마을이 들어선 이후 삼도리 지역은 성내(城內)에 위치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고성(古城)의 터가 오늘날 제주시 삼도2동 1159번지 일대,⁹⁾ 곧 북초등학교 서북쪽에 남아 있었던 사실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여기는 통칭 '묵은성'이라 일컫는 지역에 해당하고, 그 호칭도 고성이 있었다는 데서 연유했다. 이는 광무 3년(1899) 편찬 『제주군읍지(濟州郡邑誌)』 수록의 「제주지도(濟州地圖)」 등에 '진성동(陳城洞)'이 표기되어 있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진성동'은 '묵은성골'의 한자 차차표기로서 '진(陳)'은 '묵은'의 훈독자, '성(城)'은 '성'의 음가자, '동(洞)'은 '골'의 훈독자 표기인 것이다.

묵은성 주변의 성은 조선 태종 11년(1411)에 보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던 제주 읍성의 성곽으로 계속 활용되기도 하나,¹⁰⁾ 애초 축조된 시기는 5세기 무렵 이후부터였다고 보인다. 즉, 묵은성 일대 성(城)의 축조 시기는 제주 지역이 '耽羅' 등으로 불리고, 그 정치적 지배자가 문헌에서도 확인되는 '國主'·'王子'·'佐平' 등이라 일컬어지며, 한반도 육지부의 삼국과 아울러, 일본 및 중국 지역과도 자율적으로 교역을 행하던 탐라국시대에 해당하는 5세기~7세기 후반 무렵일 것이다. 또한, 성의 공간적 범위가 동쪽은 산

지천 서안, 서쪽은 병문천 동안을 각각 경계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묵은성 일대는 전통적으로 삼도리 지역에 해당되어 왔었던 곳이다. 이에 5세기~7세기 후반 무렵부터는 삼도리 지역, 곧 제주목관아지 일대가 성내에 자리잡았다고 하겠다.

삼도리 지역이 성내에 자리잡고 나서는 제주사회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는 시설물이 들어서기도 하였다. 칠성도(七星圖)가 탐라국시대에 세워졌던 것이다. 이는 고·양·부 등의 삼성시조가 일·이·삼도 등이라 일컫는 3개 지역의 땅을 나누어 차지할 때 북두칠성 모양으로 대를 쌓았다는데서 이름이 유래했다고 한다.¹¹⁾ 그 터는 칠성로 3개소, 관덕로 2개소, 남문로 2개소 등으로 오늘날의 일도동·이도동·삼도동 지역에 분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¹²⁾ 칠성도는 영조 12년(1736) 김정이가 제주목사로 와 있을 때 보수·정비가 이루어졌고, 일제식민지시대 초기까지 보존되었으나,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용담동 지역 중 해안에서 한단 올라온 표고 20m의 언덕으로 한천과 병문천 하류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며, 드넓은 '동한드기' 벌판이 한 눈에 들어오는 곳에서는 회색도기(灰色陶器)의 파편이 상당량 출토되었다. 회색도기는 통일신라 때 한반도 지역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서 제주에서는 만들 수 없고, 다른 유적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다. 이외에도 중국 고청자

제주 관할에 주요한 위상과 역할을 지속해 나아갔다.¹⁵⁾ 바로 이들 성주·왕자 등의 집무처, 이를 이른바 성주청(星主廳)이라 일컫는다. 이것의 위치도 삼도리 지역에 해당했다. 즉, 성주청은 오늘날 제주시 삼도2동 44-5번지, 곧 관덕정 동쪽 편 우체국 터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¹⁶⁾

한편, 고려의 대몽항쟁(對蒙抗爭)이 40여 년 지속되던 가운데 마지막 항몽세력의 삼별초(三別抄)가 원종 14년(1273) 제주에서 패망했다. 이를 계기로 제주 지역은 몽골의 직할령으로 편입된 뒤, 최영(崔瑩) 장군이 탐라의 몽골족 목호세력(牧胡勢力)을 정벌하는 공민왕 23년(1374)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 간 몽골족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때 몽골은 제주에 탐라총관부(耽羅總管府) 등의 관아를 설치했었다. 이것도 삼도리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들어섰었다. 즉, 몽골의 제주 관아는 제주성 북쪽 해안, 오늘날 탐동서남쪽 삼도2동 10-2번지, 곧 북초등학교 북쪽 편 우체국물류센터 일대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¹⁷⁾

몽골족이 100여 년에 걸쳐 제주를 지배하는 동안에는 몽골제국의 14개 국립목장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가 컸던 탐라국립목장도 설치·운영되었다. 이로써 우마사육이 제주의 전통적 산업으로 뿌리 내려 경제력이 확대되었으며, 외부인이 제주로 유입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어 인구가 늘어나는 등과 같은 제주사회의 규모 확대도 가져왔다. 이와 관련해 제주목이 충렬왕 21년(1295)에 생겨났다.¹⁸⁾

고려시대의 목(牧)은 계수관(界首官) 지역으로 최상급 지방행정단위에 해당했다. 제주 지역도 제주목으로 개편된 이후부터는 고려의 최상급 지방행정단위가 되었던 셈이다. 또한 충렬왕 26년(1300)에 이르러서는 제주목에 중심을 두고, 제주 지역을 동·서 방향으로 14개 현(縣)이 설치되는 행정단위의 개편도 이루어졌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신촌·함덕·김녕·토산·호촌현(狐村縣; 남원을 신·하례리 일대) 등이, 서쪽으로는 귀일·고내·애월·곽지·명월·차귀(遮歸; 한경면 고산리 일대)·산방(山房; 안덕면 화순

리 일대)·예래·홍로현(洪爐縣; 서귀포시 서·동홍동 일대) 등이 생겨났다. 이와 이미 희종 7년(1211)에 생겨난 귀덕현(歸德縣)이 합쳐져 제주 지역의 행정단위는 주현(主縣) 제주목과 이의 관할을 받는 속현(屬縣) 15개 현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바로 이때 삼도리 지역이 제주목을 둘러싼 성곽 내부에 자리잡은 일도·이도 지역과 더불어, 제주목의 본읍에 해당하는 대촌현(大村縣)으로 편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⁹⁾

한편, 충렬왕대 제주 지역의 행정단위 개편은 동·서 방향에 위치한 몽골의 탐라국립목장에 힘입어 제주사회의 경제력과 인구 등의 규모가 이전보다 커졌던 사정이 반영되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이에 대촌현이 생겨나는 시기에 이르러서는 삼도리 지역도 일도·이도 지역과 함께, 마을 규모가 이전보다 더욱 확대되었을 것이다.

현 제주목관아지 일대이고, 그 기원에 해당하는 삼도리 지역은 5세기~7세기 후반 무렵 성내에 자리잡은 이후, 관아시설 등이 들어서는 한편, 마을 규모도 점차적으로 커 나아가 13세기 후반 이후부터는 제주사회의 최대 중심지라는 위상을 뚜렷이 지니게 되었다. 그래서 14세기에 와서는 일도·이도 지역과 함께 대촌현이라 일컬을 듯이, 독자적이며, 개별적 군현단위의 행정적 편제가 이루어지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또한 대촌현은 제주 전 지역을 통할하던 제주목의 성내 지역으로서 읍치(邑治)의 위상도 지녔다고 하겠다.

3. 조선시대

1) 조선시대 군현제의 개편과 제주 지역의 삼읍 설치

조선은 초창기부터 고려의 군현제를 개편·정비해보다 더 중앙집권적 형태의 지방제도를 갖추었다. 조선시대의 군현제는 고려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²⁰⁾

우선, 조선시대에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중간

기구의 행정단위로서 도제(道制)가 실시되었다. 그래서 성종 16년(1458)에 편찬된 『經國大典』에 의하면, 전국이 8도·4부·4대도호부·20목·43도호부·82군·175현 등의 330여 개 행정단위로 구획되었다. 도의 장관은 관찰사였고, 각 지역의 수령으로는 읍격에 따라 직급의 차이가 나는 부윤·대도호부사·목사·도호부사·군수·현령·현감 등이 파견되었다. 조선은 도제가 확립·실시됨에 따라 고려에 비해 지방을 보다 더 강력하게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조선정부는 고려시대 군현제의 특색 중 하나로서 손꼽히는 주·속현체제를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군현제 개편을 행해 나아가기도 하였다. 즉, 조선정부는 외관이 파견되어 주현의 위상을 갖는 군현만이 중앙정부와 직접 연결되어 행정업무가 처리되고, 외관이 파견되지 않아 속현의 위상을 갖는 군현은 자신과 주·속현관계를 맺은 주현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행정업무가 처리되는 고려의 지방지배 방식을 지양하는 대신, 외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을 없애고, 전국의 전 군현에 외관을 두는 정책을 펼쳐 나아갔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구와 경제력 등의 규모가 작은 영세군현은 병합하거나, 혹은 철폐하여 직촌, 또는 면이나 방과 사, 아니면 면 등의 밑에 두는 리나 촌, 혹은 동등등과 같은 군현의 하부단위로 편제하는 정책도 병행해 나아갔다. 이는 군현의 영역을 나누고, 이들을 면과 리 등으로 편제해 군현의 하부단위로 두는 면리제가 실시·정착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²¹⁾ 이 때문에 500여 개에 달했던 고려의 군현이 조선시대에 와서는 330여 개로 줄어들고 동시에, 전 군현에 외관이 파견되어 속현이 소멸해 없어지게 되었다.

역시, 제주 지역도 조선왕조에 들어와 군현제 개편이 이루어졌다.

고려시대 때 제주는 한반도로부터 바다로 멀리 떨어진 규모가 큰 섬인 점, 그리고 자율적 정치체였던 탐라국이 오랫동안 유지되었기에 형성된 역사적 경험 이 깃들인 곳 등의 특수성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아 줄곧 독립적으로 운영된 행정단위였다. 그런데 조선시

대 들어와 8도제가 태종 14년(1414)에 확립됨에 따라 전라도와 영속관계를 맺게 되었다. 즉, 『경국대전』를 보자면, 제주가 나주 및 광주 지역과 더불어, 정3품에 해당하는 목사가 수령으로 파견되는 목 단위의 행정단위로서 관찰사를 장관으로 둔 전라도에 영속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주 지역은 고려 충렬왕 26년(1300) 이후 제주목의 외관이 15개에 달하는 현을 관할하기에 멀리 떨어지거나 가까운 지역을 불문하고, 15개 현 단위의 주민은 제주목에 와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조선시대 들어와서도 고려시대 국가의 제주 관할 체계가 지속됨에 따라 그 폐단이 점차적으로 커져 나아갔다. 즉, 인구가 많아지고,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되자, 한라산 남쪽의 山南 주민이 한라산 북쪽에 자리잡아 거리가 먼 산북의 제주목 관아로 나타나야 하는 어려움이 커져 나아갔고, 제주목 관아에서 멀리 떨어진 산남 지역에는 행정력이 강하게 미칠 수 없었던 탓으로 토호세력의 횡포가 자행되는 경우가 잦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태종 16년(1416) 제주도안무사 오식(吳湜) 등의 건의에 따라 동쪽의 신촌현·함덕현·김녕현 등과 아울러, 서쪽의 귀일현·고내현·애월현·곽지현·귀덕현·명월현 등의 지역은 대촌현, 즉 제주성을 본읍으로 삼은 제주목에 속하게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동쪽과 서쪽은 각각 정의현과 대정현을 본읍으로 설정해 현감을 파견한 다음, 정의현에는 토산현·호아현·홍로현, 대정현에는 예래현·차귀현·산방현 등의 지역을 소속시키는 개편이 이루어졌다.²²⁾ 이는 고려시대 때 설치·운영되었던 15개 현이 각각 삼읍의 하부단위에 해당하는 직촌으로 편제되었음을 의미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제주 지역은 태종 16년(1416) 조선왕조의 군현제 개편에 따라 전라도와 영속관계를 맺는 한편, 제주목·정의현·대정현 등의 3개 군현으로 구획되었다. 이로부터 제주 지역은 3개 군현 단위 중심의 삼읍으로 나누어졌고, 그 구분의식이 지역 주민들에게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했거니와, 국가의 지배력도 1목·2

현으로 이루어진 삼읍의 운영을 통해 실현되어 나아갔다.

2) 삼읍 설치 이후 제주목관아지 일대의 변화

조선시대 때 전국의 각읍, 곧 군현은 수령이 집무하는 동헌 등과 같은 관아 시설이 들어선 중심지를 성곽으로 둘러싼 읍성을 거의 지녔었다. 이곳이 곧 읍치라 일컬어지기도 했다. 제주의 삼읍 가운데 제주목의 경우에는 제주성이 읍성이고, 읍치였다.

애초 제주성의 공간적 범위는 ‘목은성’ 주변의 성과 마찬가지로, 동쪽은 산지천 서안, 서쪽은 병문천 동안을 각각 경계로 삼았다고 하겠다. 조선시대 들어와서도 삼도리 지역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성내에 자리잡았다.

성내는 제주 사람들이 大村이라 일컬어 왔었다. 대촌은 삼도리 지역과 함께 일도·이도리 지역을 통틀어 칭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들 지역은 제주성 안에 있었으므로 ‘성안’, 혹은 민간에서는 제주목 안이라는 데서 ‘목안(牧內)’의 뜻을 갖고, 이것의 현실음을 반영한 ‘모관’이라고도 일컬었다.²³⁾

삼도리 지역은 성내 가운데서도 동으로는 제주성의 남문, 오늘날 속칭 ‘남문통’이라는 곳, 곧 제주시 이도일동 1443과 1460 번지 일대의 서북쪽, 서로는 제주성의 서문, 즉 제주시 삼도2동 1078-1번지 일대의 동

남·북쪽에 해당했다. 여기에는 제주목 소속의 관아가 준비하게 들어서 있었다.²⁴⁾ 현존의 관덕정을 중심으로 북동쪽의 동헌과 그 부속건물, 남동쪽으로는 판관의 집무처와 그 부속건물 등이 자리잡았던 것이다. 이들 관아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자면, 북동쪽으로는 종루, 홍화각, 우연당, 연희각, 애매헌, 굴림당, 영주관, 옥, 남동쪽으로는 찬주헌, 찰미헌, 생백헌, 향사당 등이었다. 이들 관아는 제주목 뿐만 아니라 정의현과 대정현 지역, 즉 제주 지역 전체의 온갖 일을 관할하던 행정의 최고기구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삼도리는 5세기 후반 이후 탐라국시대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 들어와서도 제주사회를 관할하던 행정의 핵심적 지역이라는 위상을 계속 유지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광해군 1년(1609)에는 대촌이 제주목의 중면(中面)으로 개편되고, 종래의 일도·이도·삼도 지역이 각각 일도리(一徒里)·이도리(二徒里)·삼도리(三徒里) 등으로 구분·편제되었다고 한다. 즉, 삼도리라는 호칭과 그 지역 구분이 광해군 1년(1609)부터 공식적이고, 행정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삼도리”가 각종 고지도와 읍지류에서 확인되기 시작하는 것은 18세기 중반 무렵에 이르러서였다.

18세기 중반 이후 편찬의 『탐라방영총람(耽羅防營總覽)』에는 삼도리라는 호칭이 일도리·이도리와 함



<그림 1> 현 일도·이도·삼도동의 지적도와 제주성 둘러 표식



<그림 2> 제주목 관아 배치도(『탐라방영총람』, 18세기 후반)

께 보이며, 이들은 제주성안에 자리잡고 있는 한편, 제주목 소속의 중면·좌면·우면 가운데 중면에 편제되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중면에는 제주성 동문 밖 8개 리, 남문 밖 7개 리, 서문 밖 9개 리 등도 같이 편제되어 있음과 아울러, 그 각각의 지명도 낱낱이 열거되고 있다. 이들 지명을 보자면, 오늘날 제주시 洞 지역의 관내에 해당하는 공간적 범위가 18세기 중반 이후 제주목 소속 중면의 성안 3개 리와 아울러, 각 성밖에 위치했던 24개 리, 도합 27개 리 단위로 구분된 지역을 통합해 이루어졌음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1780년대 편찬되었을 『제주읍지(濟州邑誌)』의 방리(坊里)조에는 제주목 소속 중면의 25개리 가운데 삼도리는 민호(民戶) 337·남 616·여 1054, 일도리는 민호 351·남 838·여 1052, 이도리는 민호 282·남 624·여 842 정도 등에 달했던 사실도 나온다. 이로 볼 때, 18세기 후반 무렵 성내 지역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마을이 들어서 있었던 곳은 현재 동문로타리 서남쪽 일대에 해당하는 일도리, 그 다음이 삼도리, 이어 오늘날 남문로타리 주변 일대가 그 공간적 범위가 되었던 이도리 지역이었다.

18세기 후반 무렵에도 삼도리는 제주도내 행정을 총괄하던 제주목 소속의 관아가 즐비하게 들어섰던 만큼, 제주사회를 관할하던 행정의 핵심부 지역이기는 하나, 민가로 이루어진 마을 규모에 있어서는 일도리 지역에 비해 조금 작은 편이었다고 하겠다. 이는 조선초기부터 관아가 삼도리 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선데 대한 반작용으로서, 사람들이 산지천 동안 주변에 거주하는 추세로 나아갔던 결과의 반영일 듯싶다. 한데 20세기 초에 와서는 삼도리와 일도리 지역의 마을 규모 순위가 서로 바뀌었다.

광무(光武) 8년(1904) 제작의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에 의하면, 마을 규모가 일도리의 경우는 연가(烟家) 250호·남 317구(口)·여 360구·합 677구·와가(瓦家) 41칸·초가(草家) 793칸·합 834칸, 이도리는 연가 229호·남 327구·여 358

구·합 685구·와가 8칸·초가 518칸·합 526칸, 삼도리는 연가 450호·남 549구·여 643구·합 1,192구·와가 57칸·초가 1,122칸·합 1,179칸 등이다. 이에 의하면, 삼도리 지역은 일도리와 이도리 지역에 비해 거주 인구뿐만 아니고, 오늘날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와집도 훨씬 많았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 초반에 이르러서도 삼도리, 곧 제주목관아지 일대가 제주사회를 관할하던 행정의 핵심부 지역이라는 위상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마을 규모도 성내, 아니 제주도내에서 가장 크며, 또한 부유계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부촌으로서의 면모도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4. 맺음말에 대신하여

- 근·현대 삼도리 지역의 연혁

오늘날 제주목관아지 일대는 통칭 ‘구도심지’로 일컫는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여기는 고도(古都)로서의 위상은 물론이고, 마을 규모 및 상권도 날로 위축되어 나아가는 추세이다. 이 단초는 제주목관아지가 자리잡았던 삼도리 지역 마을 규모의 위축화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1914년 행정구역의 폐지와 통합이 이루어질 때, 종래의 제주군 중면이 제주군 제주면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삼도리 지역은 일도·이도리 지역과 더불어 제주면으로 편제되었다. 제주면 관내는 오늘날 제주시 洞 지역의 바탕을 이루게 되는 25개 리로 구성되었다. 1931년에는 삼도리 지역이 제주면의 제주읍 승격에 따라 제주읍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민족해방이 이루어져 1년이 지난 1946년부터 제주 지역에 도제(道制)가 실시되기 시작했다. 1955년에 이르러서는 제주읍의 제주시 승격과 시제(市制)의 실시에 따라, 삼도리는 삼도1동과 삼도2동으로 분화되고, 이들은 다른 24개 리 마을과 함께 제주시 관내 소속 40개 洞(현 제주시 법정동 40개와 일치)의 하나로서 각각 편입되었다.

일제식민지시대 이후 제주의 행정단위 개편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삼도리는 제주읍사무소와 제주시청 등이 자리잡는 등 행정의 핵심부 지역이라는 위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아갔던 편이다. 더욱이, 마을 규모도 제주도내에서 가장 컸다. 비교적 인구 밀집도가 높았던 일도·이도리 지역과 비교해 보자면, 1929년 무렵 삼도리는 호수 713호·인구 3,375명, 일도리는 호수 503호·인구 1,371명, 이도리는 호수 355호·인구 1,416명이었다. 1951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삼도리는 호수 2,528호·인구 12,264명, 일도리는 호수 1,980호·인구 10,179명, 이도리는 호수 1,196호·인구 7,472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시 삼도리 지역의 인구는 제주면 소속 20개 리 전체 인구의 17% 정도에 해당했다.

삼도리 지역은 해방이 되어 6년이 지난 시기에에도 제주읍 소속의 리 가운데서도 최대 규모의 마을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곧 이어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1953년의 통계에 의하면, 삼도리 지역은 호수 1,853호·인구 9,513명, 일도리 지역은 호수 1,882호·인구 8,867명, 이도리 지역은 호수 1,307호·인구 6,648명이었던 것이다. 이때만 하더라도, 삼도리 지역은 제주읍 전체 인구 60,971명의 15.6% 정도에 달할 만큼, 제주읍 소속의 25개 리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했다. 그럼에도, 종전과는 달리, 호수에 있어서는 일도리 지역에 밀리고 있는 것이다. 이 무렵 일도리 지역은 제주읍 소속의 25개 리 가운데 호수가 가장 많고, 그 비율은 제주읍 전체 호수 11,971호의 15.7% 정도에 해당했다. 이로써 삼도리 지역이 1953년 무렵부터는 마을 규모가 위축되기 시작했다고 하겠다.

반면, 일도리 지역은 마을 규모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로 나아갔다. 그래서 제주읍이 제주시로 승격되고, 또한 일도리 지역이 일도1·2동으로 분화된 1965년 시점에 와서는 일도2동 지역이 제주시 전체 인구 84,267명 중 12.2% 정도에 달하는 10,246명의 인구가 살만큼, 제주도내 최대의 마을이 들어서기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마을 규모가 컸던 지역은 9,156명의 건입

동, 6,416명의 삼도2동, 6,228명의 삼도1동 등의 순서라 하겠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일도리 지역의 마을이 제주 최대 규모의 마을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1945년 현 동문로타리 일대에 동문상설시장이 들어서고, 그것의 활성화로 인해 상업지구로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어 나아감에 따라 상업에 종사하는 인구 유입이 많이 이루어졌던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하겠다. 또한, 일도리 지역이 제주도내에서 육지부와 인적·물적 교류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진 제주항과 인접하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1953년 무렵만 하더라도, 일도리 지역은 가장 많은 주민이 상업에 종사했던 것에 비해, 삼도리 지역은 여전히 농업을 통해 생계를 도모했던 사람이 가장 많이 살았다는 점을 통해서도 반증된다고 하겠다.

1953년 이후 삼도리 지역은 조선시대 이래 제주 최대 규모의 마을이 들어섰던 곳이라는 특색을 지녀왔으나, 서서히 퇴색되어 나아갔던 것이다. 1955년에는 제주읍의 제주시 승격 및 시제실시와 함께 삼도1동과 삼도2동으로 분화되었다. 이 구획은 기존 삼도리 지역 가운데 현 관덕정 앞의 구일주도로를 경계로 남쪽은 삼도1동, 북쪽은 삼도2동 지역으로 나눈 뒤, 삼도1동은 남쪽으로 이도2동 및 오라동과 경계가 접하며, 삼도2동은 북쪽으로 해안가와 잇닿게 이루어졌다. 이로써 제주목관아지 일대가 삼도2동의 관내로 편입되었다. 또한 삼도리라는 지명이 더 이상 공식적이고, 행정적 지명으로 사용되지 않았듯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1955년 이래 삼도2동이 삼도1동과 병존해 나아가던 중, 1962년에 와 제주시 40개 동이 14개 행정동으로 축소되는 개편이 일어났다. 이로부터 삼도2동과 삼도1동도 하나로 통합되어 삼도동이라 일컬어졌다. 이로써 삼도2동이라는 지명이 행정동의 명칭으로는 소멸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1960년대 말부터 삼도동, 특히 종전의 삼도1동 지역이 두 차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영향으

로 도시화의 커다란 진전과 아울러, 마을 규모가 확연히 커 나아갔다. 그래서 1983년에 와서는 행정구역의 개편을 불러일으켰다고 하겠다. 즉, 삼도동이 1977년부터 공부(公簿)상 삼도1동과 삼도2동으로 분리되기 시작하는 과도기 과정을 거친 뒤, 1983년부터는 삼도1동과 삼도2동으로 완전히 분동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삼도2동은 행정동으로서의 구역과 그 명칭이 1962년 이래 20여 년 간 소멸되었다가, 1983년에 다시 소생하게 되었다. 더욱이, 행정구역과 마을이 1962년 이전보다 더욱 확대되었다. ‘남문골’ · ‘각시당’ · ‘병문골’ · ‘불망골’ · ‘상청골’ · ‘이앗골’ · ‘삼내나뭇골’ 등의 마을과 그 지역은 전통적으로 삼도1동에 속해왔었는데, 1983년 삼도2동의 관내로 옮겨 편제하는 개편도 아울러 시행되었던 것이다.²⁵⁾ 이로써 삼도2동의 관내가 제주목관아지를 중심에 두고서, 경계가 서쪽으로는 삼도1동과 용담1동, 동쪽은 건입동 및 일도1동과 이도1동, 남쪽은 삼도1동, 북쪽은 해안지대와 잇닿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제주목관아지 일대가 여전히 삼도2동 관내에 자리잡게 되었을 뿐만 아니고, 나머지 제주목 관아터 일대도 삼도2동 관내로 편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사실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보아, 삼도리 지역, 그 가운데 제주목관아지 일대는 5세기~7세기 후반 무렵부터 고려·조선시대를 거쳐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주 최대 규모의 마을이 들어서 왔었던 만큼, 선사시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제주사회의 형성과 변천을 엿볼 수 있는 역사유적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 곳이다. 특히, 제주사회의 첫 정치조직체였던 탐라국의 개막 및 전개와 관련된 마을 유적도 상당수 찾아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때문에 제주목관아지 일대는 제주사회 형성사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안목의 정비와 보존이 기대되는 곳이라 하겠다.

■주

- 1) 三國史記 권26, 백제 본기 4, 文周王 2년 4월조.
- 2) 전경수, 1987, “탐라사회의 기본구조와 운동방향”, 제주도연구 4, 제주학회: 박원실, 1993, “탐라국의 형성

- 발전과정연구”, 서강대학원석사학위논문: 진영일, 1994, “고대탐라의 교역과 ‘국(國)’ 형성고”, 제주도사연구 3, 제주도사연구회: 이청규, 1995, 제주도 고고학연구, 학연문화사: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 제주도사연구회, 1997, 탐라사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제1회 제주사정립학술심포지엄 주제발표문.
- 3) 현용준, 1992, “삼성신화연구”,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80~190쪽.
- 4) 장주근, 1994, “삼성신화의 형성과 문헌정착과정”, 탐라문화 1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07쪽.
- 5) 현용준, 앞의 책, 190~226쪽.
- 6) 이청규, 1994, “삼성신화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탐라문화 1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29~137쪽.
- 7) 이청규, 앞의 논문, 134~136쪽.
- 8) 오창명, 1998, 제주도 이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 출판부, 232~233쪽.
- 9) 한라일보사 유적지표석세우기 추진위원회, 2002, 잊혀져가는 문화유적 제주시편, 한라일보사, 44~46쪽.
- 10) 제주도, 1996, 제주의 방어유적, 제주도, 29~30쪽.
- 11)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제주목, 고적조.
- 12) 홍기표, 2011, “철성대 유적의 역사 문화적 사실 고증”, 제주성내 철성대 역사문화자원 발굴·활용 기본연구 보고서, 제주시·(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50~58쪽.
- 13) 이청규, 앞의 책, 309~317쪽.
- 14)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제주시문화유적분포 지도해설집, 제주시, 40~42쪽.
- 15) 김일우, 2000, 고려시대 탐라사연구, 신서원.
- 16)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제주목관아지, 제주시, 1~62쪽.
- 17) 한라일보사 유적지표석세우기 추진위원회, 앞의책, 196~198쪽.
- 18) 김일우, 2003, “제주·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한국사학보 15, 고려사학회.
- 19) 太宗實錄 권31, 태종 16년 5월 정유조: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 고적조.
- 20) 김일우, 2007, “고려시대와 조선초기 제주도 지역의 행정단위변천”, 한국중세사연구 23, 한국중세사학회.
- 21) 이수진, 1989, 조선시대지방행정사, 민음사, 50~109쪽.
- 22) 太宗實錄 권31, 태종 16년 5월 정유조.
- 23) 오창명, 앞의 책, 230쪽.
- 24) 제주대학교박물관·제주시, 1993, 제주목관아지, 제주시, 37~41쪽.
- 25) 제주시·제주문화원, 1996, 제주시 옛지명, 제주시, 231~243쪽.

■참고문헌

김일우, 2000, 고려시대 탐라사연구, 신서원.

김일우, 2003, “제주 · 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한국사학보 15, 고려사학회.
김일우, 2007, “고려시대와 조선초기 제주도 지역의 행정단위변천”, 한국중세사연구 23, 한국중세사학회.
이청규, 1995, 제주도 고고학 연구, 학연문화사.
제주시 · 제주문화원, 1996, 제주시 옛지명, 제주시.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제주목관아지, 제주시.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해설집, 제주시.

한라일보사 유적지표석세우기 추진위원회, 2002, 잊혀져가는 문화유적 제주시편, 한라일보사.
현용준, 1992,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三郡戶口家間摺冊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瀛洲誌
濟州郡邑誌
耽羅防營摺覽 

투고일 2011. 07. 15
수정일 2011. 07. 22
확정일 2011. 07. 29

